

Factors of Corruption Perceptions

- Implications toward National Crisis Management -

Jae Sun W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onam University, 60 Honamdae-gil, Gwangsan-gu, Gwangju,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I used a multi-level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individual's perception of corruption, considering both individual level variables and national level on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both perception of social and public corruption level are influencing evenly by individual factors and 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It also suggests that the perceived levels of corruption in the society as a whol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by public institutions are differentiat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may also constitute social risks and crisis situations and that government policy efforts to mitigate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of the public are needed.

Key words: perceptions of corruption, individual factors, national context, multi-level analysis

1. 서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부패의 문제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정부패 문제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다. 부패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UN에서 개최된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발전의 목표로서 17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였다. 본 포럼에서도 17SDGs를 달성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애

요인으로서 부패의 문제를 강조하였다. 즉 부패는 가장 소외된 계층으로부터 보건, 교육, 위생 등과 같은 핵심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 가능성을 박탈함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고 빈곤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IMF와 World Bank 등이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국가위기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목표로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경찰은 2018년 엘시티 추락사고에 대해서 '부실한 안전관리·감리에 부정 부패가 결합된 인재'라고 결론 내렸으며, 2014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세월호 사고 역시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부정한 유착관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일치된다.

⁺ Corresponding author: Jae Sun Wang, Tel. +82-62-940-5244, Fax. +82-62-940-5202, e-mail. jaesunwang@gmail.com

이처럼 부패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와 같이 사회에 퍼져나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 혹은 국가의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뿐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부패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많은 연구에서 부패는 경제적 투자에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 정치제도에 대한 정당성, 사회적 지출 수준, 세금 징수, 그리고 불평등 해소 등 국가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부패 이슈에 대한 사례로서 개발도상국 혹은 저개발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유럽 선진국에서의 부패 문제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Shore & Heller, 2005; della Porta & Vannucci, 2012; Miller, 2015; Offer & Söderberg, 2016). Miller(2015)와 Offer & Söderberg(2016)는 선진국에서의 부패문제는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업 부패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부패의 문제는 국제기구 및 실무자들뿐 아니라 연구자들에게서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부패의 문제가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며, 부패 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동기는 미시적·거시적 수준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다측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icchieri & Ganegonda, 2016; Dimant & Schulte, 2016; Dimant & Tosato, 2018). 이러한 이유로 부패에 대한 더욱 정교하고 체계화 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개개인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그 나라의 전체적인 부패수준을 추론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자국의 부패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국가적인 사회문화·제도적 특성이 어떻게 사람들의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이 본 연구의 질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이 인식하는 부패수준은 그 나라의 전체적인 부패수준을 파악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부패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개인의 부패에 대한 인식 역시 개인적 수준의 미시적 요인뿐 아니라 그 나라의 일반적인 사회문화·제도적인 요인 등 거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즉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수준에서의 요인과 국가적 수준에서의 구조적 혹은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럽 28개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Eurobarometer data」를 활용하여 부패인식의 요인을 찾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부패연구의 경향

부패의 주제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특히 경제학과 정치학 분야에서는 부패에 대한 국가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부패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패의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부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에서 부패의 효과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그 영향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Jain, 2001).

기존 연구들은 부패가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주장한다. 부패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효율적 부패(efficient corruption)’ 혹은 ‘grease-the-wheels’를 주장한다(Leff, 1964; Huntington, 1968; Lui, 1985). Bardhan(1997)은 부패가 관료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뇌물공여자들(bribers)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분배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grease-the-wheels’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패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지지하였다(Jain, 2001; Svensson, 2005).

Gupta, *et. al.*(2001)은 보건의료와 교육서비스의 양과 질이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Jain(2001)은 부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부패와 관료적 효율성(bureaucratic efficiency)(Celarier, 1997; Rose-Ackerman, 1997), 부패와 자원배분(resources allocation)(Murphy, *et. al.*, 1991; Tanzi & Davoodi, 1997; Mauro, 1997), 부패와 비용상승(cost-enhancement)(Shleifer & Vishny, 1993; Ades & Di Tella, 1997; Wei, 2000; Fons, 1998; Gray & Kaufmann, 1998; Hall & Yago, 2000), 부패와 사업선택(project selection)(Mauro, 1995; Mauro, 1997; Knack & Keefer, 1995; Tanzi & Davoodi, 1997; Murphy, *et. al.*, 1991), 그리고 부패와 소득 및 부의 분배(distribution of income & wealth)(Kurer, 1993; Rose-Ackerman, 1997a; Gupta, *et. al.*, 2002) 등의 관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최근 Dimant & Tosato(2018)은 부패의 원인파괴 결과에 대한 기존 실증연구의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부패의 결과로서 관료적 비효율성(Kaufman & Wei, 1999), 투자의 분위기와 질 저하(de la Croix & Delavallade, 2009; Beekman, *et. al.*, 2014; Castro, *et. al.*, 2014; Azfar & Gurgur, 2008), 경제성장 둔화(Tanzi & Davoodi, 2001; Glaeser & Saks, 2006; Swaleheen & Stansel, 2007; Aidt, 2009),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Campos, *et. al.*, 1999; Egger & Winner, 2005; Barassi & Zhou, 2012; Busse & Hefeker, 2007; Al-Sadig, 2009), 소득 불평등과 빈곤(Gupta, *et. al.*, 2002; Gyimah-Brempong & de Camacho, 2006; Dobson & Ramlogan-Dobson, 2010; Andres & Ramlogan-Dobson, 2011)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초점인 부패의 원인과 관련하여 Dimant & Tosato(2018)는 관료제와 비효율적인 행정과 정치적 구조, 시민참여와 언론의 자유, 경제적 자유, 경제성장, 인종적 다원성, 세계화, 정부 규모와 구조, 법체계, 종교 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양한 요인을 도출해 내고 있다. Tanzi(1998), Kaufman & Wei(1999), Goel & Nelson(2010) 등의 연구에서는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이 부패를 유발함을 분석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는 Paldman(2002), Saha, *et. al.*(2009)의 연구에 의해서 부패수준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reisman(2000)은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 역사, 문화적 전통, 경제발전의 수준, 정치제도, 정부정책에 따라 서로 다른 이론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교, 법적 전통, 경제적 수준 등이 부패에 영향을 미침을 국가비교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부패에 대한 경제적 수준의 영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Pellegrini & Gerlagh, 2004; Ali & Isse, 2003; Aidt, *et. al.*, 2008; Bai, *et. al.*, 2013). 또한 Treisman(2007)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에서의 높은 여성 비율, 높은 수준의 무역개방 등을 갖춘 국가에서 주관적 부패인식이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Bhattacharyya & Hodler(2015)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부패와 부정적 관계에 있음을 제시한다. 법체계 혹은 법적 전통 역시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Pellegrini & Gerlagh(2008), Goel & Nelson(2010) 등의 연구에서는 legal code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나 일치된 결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 Lee(2011)는 공직부패의 발생원인을 유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부패연구의 초점이 개인 도덕심이나 가치, 태도 등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중요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직부패가 개인적인 Shin(2013)은 부패의 사회적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경제지상주의), 가족제도, 종교적 통합 등을 제시하고 있

다. 그는 부패의 원인을 거시적 요인에서 탐색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Ko & Cho(2017)의 연구는 시민의 부패경험과 부패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부패인식이 아닌 부패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부패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부패의 영향요인을 경제적 합리성, 제도적 차원, 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제도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망라하여 분석하고 있다. Kim(2017) 역시 공직부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으로 정리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연구에서 부패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Jain(2001)은 부패의 효과와 원인이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거시경제적 상황변수들은 부패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것이 환류(feedback)되어 부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부패의 원인과 결과는 상호독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의 원인이 되는 현상은 향후에 부패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부패의 원인을 진단하면, 부패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확하게 부패의 원인은 아니지만 인식적 차원에서 부패의 요인을 개인적 수준의 주관적 지표와 국가적 수준의 객관적 지표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개인의 주관적 인식 차원의 설문조사에 의존하던 연구와 차별화한다.

2. 부패의 개념

부패라는 개념은 많이 사용하지만 그 개념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시각에서 개념화 되어졌다.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는 그것을 어떻게 모형화하고,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Svensson(2005)은 ‘사적이득을 위한 관공서의 남용(misuse)’으로서 부패를 정의한다. 여기에서 또한 ‘남용(misuse)’은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Svensson, 2005). Kaufmann & Vicente(2011)는 법적 부패(legal corruption)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대리인들이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게임의 룰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제도, 정책, 규제, 법 등을 만드는 행위’로서 법적 부패를 정의한다.

부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게임의 룰을 어기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들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데 일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Jain, 2001). 특히 부패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관료 등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공공관료, 입법가, 정치인 등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대중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Blackburn, *et. al.*(2006) 역시 ‘공공부문의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해 관료들의 지위를 악용하여 불법적, 승인되지 않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위와 같은 개념정의에 따라 Jain(2001)은 공공부패의 유형을 엘리트 정치인의 부패(grand corruption), 관료부패, 입법적 부패 등으로 구분한다.¹⁾ 부패는 한 국가의 법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즉 부패는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규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나 비효율적 제도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한다(Djankov, *et. al.*, 2003).

부패와 유사한 많은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 가지는 부패를 세금이나 수수료 등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Shelifer & Vishny(1993)에 의하면 뇌물

1) ‘거대한 부패(grand corruption)’으로 명명된 정치엘리트에 의한 부패는 예산배분 등과 같은 자원할당을 위한 결정에서 정치엘리트들이 행하는 부패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발견되거나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료부패는 관료들이 범하는 부패로서 뇌물을 받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사법기관에서 뇌물을 통해 형을 낮춰주는 행위 역시 이러한 부패유형의 범주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입법적 부패는 입법자들이 투표행위의 과정에서 범하는 부패이다. 즉 입법자들이 이익집단에 뇌물을 받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Rose-Ackerman, 1999).

은 그것이 수반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금보다 훨씬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한다고 한다.

또한 부패를 로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Harstad & Svensson, 2011). 그러나 부패와 로비의 차이점은 로비는 그것으로 인한 변화 혹은 반응이 로비의 주체와 유사한 기관, 산업, 부문 전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뇌물을 통한 부패는 특정 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로비를 통한 변화는 매우 오랜 지속성을 가지지만 뇌물로 인한 변화는 특정 상황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부패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명확하진 않다. 다만 부패의 주체로서 정부기관에 초점을 맞춘 공공부패(public corruption)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그들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 혹은 남용하는 행위로서 정의하고 있다.

3. 부패의 요인

부패는 복잡한 사회적 현상이다. 또한 부패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동기는 다층면적이며, 미시적(micro), 중범위적(meso), 거시적(macro) 수준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Bicchieri & Ganegonda, 2016; Dimant & Schulte, 2016). 이러한 부패행위의 속성으로 인해 부패의 근원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부패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부패인식의 영향요인 역시 부패의 원인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부패 혹은 부패인식의 영향요인은 개인적 특성, 경제, 정치, 사회·문화적 요인 등 미시적·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다. 특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부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Melgar, *et. al.*(2010)은 부패인식이 결정요인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몇몇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생애에 걸쳐 발생했던 사건, 사고, 개인적 경험, 개인적 능력,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여부 등과 같은 개인

적 특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거주하는 장소 역시 중요한 부패인식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개인들이 거주하는 다양한 장소는 서로 다른 문화, 전통, 법체계, 지리적 특성, 제도·경제 발전수준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개인의 부패인식의 원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장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개인적 수준과 국가수준에서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1) 개인수준 요인

(1) 개인특성 요인

Dollar, *et. al.*(2001)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덜 이기적이고, 도움을 주려는 행위를 지향한다고 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이슈에 기초하여 투표를 하고, 윤리적인 행위에 더욱 가깝게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부패행위에 덜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그의 실증연구에서도 여성 의원이 많은 의회일수록 덜 부패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비율이 많은 관료조직 혹은 여성근로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부패의 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Swamy, *et. al.*, 2001).

개인의 교육수준은 국가의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국가에 더욱 비판적이고, 시민적 자유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압력에 강하게 저항한다(Truex, 2011). 그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어겼을 경우 인내심을 가지기 어렵다. 즉 부패행위에 대한 포용이나 인내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Glaeser & Saks(2006), Truex(2011) 등의 연구는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의 부패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Meier & Holbook(1992)은 도시화가 가족과 종교 등의 사회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프로그램과 지원이 집중되는 것에 의해서 부패에 필요한 상황을 유발한

다고 하였다. 그들은 실증연구를 통해 도시화와 부패 간에는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Mocan (2008), Lee & Guven(2013) 등의 연구들 역시 위와 같은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패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생활수준은 개인의 소득수준에 비례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부패행위에 개입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적극적이지 않다(Dimant & Tosato, 2018). 따라서 소득수준은 부패와 부정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에 대한 간접변수로서 생활수준을 측정할 변수를 사용한다.

사람들 간의 권력과 지위의 불균형은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관료의 부패행위에 대한 유인이 더욱 강해진다(Heath, *et. al.*, 2016).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관료들의 부패행위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패의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밖에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로서 연령, 직업 등이 주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Heath, *et. al.*, 2016), Nieuwbeerta, *et. al.*(2003), Mocan (2008) 등의 연구는 고연령층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Lee & Guven(2013), Richards & Heath(2016) 등은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낮은 연령층과 높은 연령층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 중간 연령층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U자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2) 관료와의 접촉 빈도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교환이론은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강조한다. 즉 사회적 교환은 행위자들 간의 규칙적인 관계성을 특징으로 한다. 지속적인 관계성은 상호성의 규범을 강조한다. 관료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개인적 유대와 의무는 교환상대에 대한 사회적 의무보다 이미 정해진 개인적 의무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de Sardan, 1999). 이는 곧 특정한 유대에 기초하여 관료들에 의해 의뢰인이 선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료와의 활발한 접촉을 통한 개인적 유대의 강화는 부패행위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 국가수준 요인

(1) 경제적 요인

경제발전수준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부패의 원인을 분석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부패는 민간영역, 제도의 질, 정책형성자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왜곡된 효과를 부과한다(Pellegrini & Gerlagh, 2004). 부패는 투자와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성장을 더디게 만든다.

많은 연구들이 경제발전 수준과 부패 간의 관계에 대해서 거의 일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habbir & Anwar(2007), Damania, *et. al.*(2003), Shleifer & Vishny(1993) 등의 연구는 경제발전 수준이 부패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의 수준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베트남 사례를 분석한 Bai, *et. al.*(2013)의 연구는 성장률이 높아지면 부패의 수준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와 부패수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경제적 자유의 수준이 높으면 부패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Dimant & Tosato, 2018). 시장에 대한 진입허가와 같은 경제적 통제의 정도가 약할수록 경제주체는 시장진입 시 부패행위의 유인과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Paldman(2002), Saha, *et. al.*(2009) 등의 연구에서는 GDP 대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부패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결과

를 제시한다. 그들은 수입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수입 장벽을 의미하는 관세가 없거나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과 수입의 장벽이 사라진다는 것은 정부관료가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는 것이다.

부패의 원인으로서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문제는 중요하다. Paldman(2002)은 ‘균형을 잃은 소득분배는 불법적인 취득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수록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부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정치적 요인

민주주의의 수준과 부패 간의 관계에서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Treisman, 2000; Wei, 2000). 즉,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의 수준과 함께 정치적 권리보장의 수준도 민주주의의 수준을 나타내는 별도의 개념으로 분석에 반영한다. 정치적 권리가 보장된 국가는 그만큼 민주주의의 수준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민주주의의 수준과 정치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구성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정치적 관점에서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수준과 부패와의 간계와 같이 정치적 권리보장 수준과 부패 간의 관계도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정부·제도적 요인

정부규모는 부패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규모가 클수록 부패의 수준은 높아진다. 정부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책임성, 투명성, 통제가능성 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은 정부는 정부의 행위, 관료행태, 자원배분 등이 쉽게 눈에 띄지만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복잡해지는 조직의 특성 상 정부가 행한 행위의 타당성, 자원배분 등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

다. 특히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사회에 개입하는 규제행위가 증가하고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패행위의 유인이 제공된다.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Goel & Nelson(1998)의 연구는 정부규모가 부패행위를 증가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의 후속연구인 Goel & Nelson(2010)의 연구에서는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부패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반대의 연구결과도 제시된다.

Arvate, *et. al.*(2010)은 규모가 큰 정부와 부패 간에 강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한다. 이렇게 반대되는 결과에 대해서 Kotera,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모는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을 때 부패를 증가시키는 반면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정부규모가 부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즉 정부규모와 부패 간의 관계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통제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기본법의 유형(legal code)은 부패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Treisman(2000)의 연구는 일반법(common law)체계를 가진 국가가 더욱 낮은 부패수준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Goel & Nelson(2010)의 연구 역시 일반법체계를 가진 국가가 더욱 낮은 수준의 부패와 관련되어 있음을 결과로 보여줌으로써 Treisman(200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Pellegrini & Gerlagh, 2008).

(4) 사회문화적 요인

언론의 자유는 반부패의 규범과 부패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치심을 느낌으로서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Dimant & Tosato, 2018).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연구결과로서 Bhattacharyya & Hodler(2015)의 연구는 언론의 자유와 부패 간에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

사회자본은 신뢰와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를 개념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들 중 신뢰는 대인간의 일반화된 신뢰를 의미하며 사회자본 개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상호호혜성을 기초로 한 신뢰와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사회자본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더 나아가 국가의 자산으로서 간주된다(Rothstein, 2011). 사회 또는 국가수준에서 사람들을 더욱 신뢰하는 사회 혹은 국가는 민주주의의 제도가 더욱 잘 작동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며, 범죄와 부패는 줄어드는 현상이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Putnam, 1993; Uslaner, 2002). Heidenheimer(1996)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사회에서 만연한 부패는 사람들 간의 신뢰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Xin & Ruden(2004) 역시 신뢰가 부족한 문화는 부패인식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힘으로써 Heidenheimer(199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거시적인 국가수준의 연구뿐 아니라 미시적인 개인수준의 연구들도 대부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LaPorta, *et. al.*, 1997; Moreno, 2002; Seligson, 2002). Seligson(1999)와 Davis, *et. al.*(2004)의 남미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 간 신뢰가 부패에 대한 인식의 중요한 예측변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종교는 국민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중요한 문화적 특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La Porta, *et. al.*(1999)은 종교가 문화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부패 문제 역시 종교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일부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 Treisman(2000)은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국가의 경우 부패의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Paldman(2001)은 개신교(reformed Christianity)와 부족종교(tribal religion)는 부패의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반면 카톨릭주의(Catholicism)의 경우 부패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North, *et. al.*(2013) 역시 정교회(orthodox Christianity)의 경우 높은 부패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프로테스탄티즘은 낮은 수준의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종교는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III. 연구설계

1. 분석에 사용된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7년 10월 조사된 Eurobarometer 88.2의 설문조사 자료이다. Eurobarometer 88.2는 유럽 28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민자와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조사하였으며, 여기에 특별 주제로서 부패에 대한 조사(Eurobarometer 470)가 이루어졌다.²⁾ 본 자료를 통해 부패에 대한 인식과 개인수준의 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WVS(World Value Survey) 등이 있다. ISSP는 매년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WVS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한다. 그러나 부패만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Eurobarometer가 가장 많은 국가와 부패와 관련된 다양한 문항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Eurobarometer의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비록 우리나라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30여개의 유럽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국가수준의 요인을 측정하는 자료로는 Freedom House,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 QoG Institute 등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다: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사이프러스공화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2. 종속변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의 측정

부패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만큼 부패에 대한 측정 역시 어려운 일이다. 부패에 대한 양적 연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부패를 측정하기 위한 공통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이루어졌다. 특히 국제기구는 국가별 부패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부패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지수이다.

Heath, *et. al.*(2016)은 부패의 측정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패의 인식을 종합지수화 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TI의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이러한 유형의 지수로서 12개의 서로 다른 자료를 기초로하여 지수를 구성하였다. 둘째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패인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Eurobarometer 등의 자료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희생자 설문(victim survey)을 통해 부패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을 질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순히 부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경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패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Olken(2009)은 부패의 측정에 있어서 주관적 인식에 편향(bias)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부패수준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보완적 측정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서 전통적인 부패측정 방법인 개인의 부패인식 정도로 측정한다. 비록 부패인식에 대한 측정이 부패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희생자 설문과 같은 보완적인 측정방법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패에 대한 인식측정을 부패측정방버으로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다(Smith, 2010). 특히 부패연구에서 부패수준의 측정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CPI(부

패인식지수) 역시 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결합한 지표이다(Anderson & Tverdova, 2003; Harring, 2012).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측정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실제 부패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뿐 아니라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 개인 간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패에 대한 인식 측정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또한 사회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유발하는 부패의 유형이 많은 부분 정부 혹은 공직의 부패와 관련이 되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하면 정치 혹은 정부의 부패는 정부로 하여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게 만들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됨으로써 국가의 전반적인 지배체제와 국가운영의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공직부패는 정치·경제적, 윤리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법학, 철학, 행정학, 언론학, 지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 부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Kim, 2013; Chung, 2010; Ko, 2016; Park, 2016).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부패뿐 아니라 공직부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의 인식, 즉 공직부패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3. 독립변수

부패수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 수준 변수와 국가수준 변수를 구분하여 두 가지 범주의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다. 개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같은 국가적 상황이나 환경에 의한 것인지 분석한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제시하였듯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수준의 변수로는 개인특성 변수로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거주지, 생활수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관료와의 접촉 빈도 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국가수준의 변수로는 경제적 환경인 경제발전수준, 경제적 자유 수준, 소득분배의 형평성 등이며, 정치적 환

경은 민주주의 수준, 정치적 권리보장 수준, 정부·제도적 환경으로 정부규모, 법체계 혹은 법적 전통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는 언론의 자유, 사회자본의 수준, 종교 등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측정지표와 기준 년도 등은 다음의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 Variables and measurement

	Variables	Measurement	Score	Sources	
Dependent var.	Perception of national corruption level	How widespread do you think the problem of corruption is in (OUR COUNTRY)?	1: There is no corruption ~ 5: Very widespread	Eurobarometer 88.2 QB5 (2017)	
	Perception of public agency corruption level	In (OUR COUNTRY), do you think that the giving and taking of bribes and the abuse of power for personal gain are widespread among any of the following?	The number of positive answer (Police, Tax authorities, The Courts etc.) (0~4: The higher score, the higher level of public corruption)	QB7 (2017)	
Individual Level	Gender		1. Male, 2. Female	D10(2017)	
	Ages		-	D11(2017)	
	Occupation		1. Employed(include self-employed) 2. Not working	D15a(2017)	
	Education	The number of schooling years	-	D8(2017)	
	Type of community	Would you say you live in?	1. Rural, 2. Town	D25(2017)	
	Level of living	Which of the following goods do you have?	The number of goods which you have among 9goods(Computer, Smartphone, Car, House/Apartment etc.) (0~9: The higher score, the higher level of living)	D46(2017)	
	Frequency of contact with bureaucrats	Over the last 12 months, have you had any contact with any of the following in (OUR COUNTRY)?	The number of contact with civil servants (Policy, Tax authorities, The Courts, Prosecutors) (0~4: The higher score, the more contact frequency)	QB9a(2017)	
	Perception of social class	Do you see yourself and your household belonging to...?	1: The working class of society~5: The higher class of society	D63(2017)	
	Independent va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GDP per capita	-	World Bank (2016)
		Economic freedom	Index of economic freedom	0~10(The higher score, the higher level of economic freedom)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2015)
Income inequality		Gini index	0-100(The higher score, the higher level of income inequality)	CIA world factbook (2014)	
democracy		Index of democracy	0-10(The higher score, the higher level of democracy)	Freedom House(2016)	
Political right		Index of political right	1-7(The lower score, the higher level of economic freedom)	Freedom House(2016)	
Government siz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 of GDP	World Bank (2016)	
Legal origin (Dummy)		Common Law Commercial code Social/Communist Law	-	La Porta <i>et. al.</i> (1999)	
Freedom of press		Index of freedom of press	0-100(The lower score, the higher level of freedom of press)	Freedom House(2015)	
Social capital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Ratio of answer 'Most people can be trusted' (%)	World Value Survey(2016)	
Religion		Population of protestant	% of total population	La Porta <i>et. al.</i> (1999)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개인수준의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결과를 살펴 보면 <Table 2>와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서 사회 전체적인 부패의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에서 전체 응답자들은 평균 약 4점 정도의 응답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자국 국가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OECD에 가입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패 정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부패문제는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평균 1.14로 경찰, 세무서, 법원, 검찰 등의 기관들 중 부패했다고 응답한 기관의 개수를 의미한다. 4개 기관중 부패했다고 응답한 기관의 평균 개수는 약 1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럽국가에서의 부패문제는 특정 공공기관의 부패문제

보다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관료와의 접촉빈도는 평균 0.44회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은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계층인식은 평균 2.37점으로 자신들을 사회에서 하위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주관적 인식으로서 실제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에 비해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의 평균 교육수준은 약 20년 정도이며, 평균 나이는 약 52세이다.

국가 수준의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민주주의 수준은 10점 만점에 평균 9.79점으로 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국제기구로부터 완전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렇게 민주화 된 사회에서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항의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부패수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권리보장 수준도 평균 1.1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치적 권리보장 수준은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해석함) 전체적으로 설문 대상이 된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N	Min.	Max.	M	S.D.
Individual var.	Perception of social corruption level	26,444	1.00	5.00	3.99	.89
	Perception of public agency corruption level	28,080	.00	4.00	1.14	1.41
	Frequency of contact with bureaucrats	28,080	.00	4.00	.44	.74
	Level of living	28,080	.00	9.00	5.88	2.36
	Perception of social class	28,080	1.00	5.00	2.37	1.00
	Ages	28,080	15.00	99.00	51.55	18.07
	Education	28,080	0.00	84.00	19.51	5.167
National var.	Democracy	28	9.00	10.00	9.79	0.42
	Political right	28	1.00	2.00	1.11	0.31
	GDP per capita	28	19,242.62	102,389.40	39,099.03	17,005.91
	Income inequality(GINI)	28	21.50	37.90	30.64	4.55
	Economic freedom	28	6.81	8.09	7.56	0.30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28	2.19	49.30	37.43	11.03
	Freedom of press	28	10.00	51.00	23.14	10.01
	Social capital	28	9.20	76.00	32.48	16.88
	Religion	28	0.00	95.20	17.76	29.18

유럽국가들은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환경인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평균 \$39,099.03로 약 \$40,000 정도이며, 국민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의 경우 \$19,242.62인 반면 가장 높은 국가는 \$102,389.40으로 가장 낮은 국가와 가장 높은 국가 간의 차이가 약 5배 정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의미하는 GINI계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30.64점으로 유럽국가들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점수가 낮을수록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음) 결국 복지국가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는 유럽국가들의 부의 평등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자유지수 역시 10점 만점에 평균 7.56점으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규모와 관련하여 GDP대비 정부규모는 평균 37.43%이다. 이는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 약 200여개 국가들의 GDP대비 정부규모의 평균치인 17.04%³⁾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유럽 국가의 정부규모는 다른 대륙의 국가들보다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문화적 환경인 언론의 자유 경우 국가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23.14점으로 언론의 자유 수준이 높다.(점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 수준이 낮음) 언론의 자유 수준은 민주화 수준과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수준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수준은 평균 32.48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32%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율은 유럽국가에서도 대인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자본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유럽국가에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프로테스탄트 인구비율이 평균 17.76%로 나타났다.

2. 다수준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개인수준 변수와 국가수준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다수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다수준 분석결과는 개인수준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수준의 변수뿐 아니라 집단적 혹은 국가적 수준의 변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부패인식에 대해서 개인적 특징 혹은 인식의 변수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1) 사회적 부패인식에 대한 다수준 분석결과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국가의 환경적 맥락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포함시킨 Model2에서 사회전체의 부패수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수준 변수는 경제적 자유, 사회자본 등이 전통적인 유의수준인 5% 이내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유와 사회자본의 수준이 낮을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수준 10% 이내로 확장하여 보면 1인당 국민소득, 정부지출규모, 프로테스탄트 인구비율 등이 유의미한 변수에 포함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과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개신교 비율이 낮을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규모가 작을수록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은 경제적 후진국이 선진국에 비해 부패의 가능성이나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만연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종교 역시 프로테스탄트 인구비율이 낮을수록 국민들의 부패인식이 강해진다는 것은 Treisman(2000), Paldman(2001), North, *et. al.* (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규모와 관련하여선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Goel & Nelson(1998) 등 많은 연구에서 정부규모와 부패수준은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주장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모가 작을

3) 출처: World Bank homepag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con.govt.zs>

Table 3. Multi-level analysis: Perception of social corruption

Regression coefficient (Fixed-effect)		Perception of social corruption			
		Model1	Model2	Model3	Model4
		b(t)	b(t)	b(t)	b(t)
Constant		3,999^{***} (44,430)	8,315[*] (2,642)	4,003^{***} (45,319)	6,708[*] (2,226)
Individual level var.	Gender			.024 (1,582)	-0,025 (-1,524)
	Ages			.001[*] (2,277)	0,001 (2,227)
	Occupation			.056^{**} (3,836)	-0,056^{***} (-3,583)
	Education			-.002^{***} (-4,593)	-0,002 (-4,644)
	Type of community			-.046[*] (-2,194)	0,046[*] (2,149)
	Level of living			.007 (1,388)	0,007 (1,469)
	Contact with civil servants			.028[*] (2,779)	0,028[*] (2,800)
	Social class			-.036^{***} (-4,389)	-0,035^{***} (-4,841)
National level var.	Democracy		.099 (,328)		0,244 (0,806)
	Political right		.299 (,737)		0,510 (1,247)
	GDP per capita		-6,130E-6[†] (-2,013)		0,000[†] (-1,979)
	Income inequality(GINI)		.008 (,499)		0,007 (0,422)
	Economic freedom		-.582[*] (-2,177)		-0,637^{***} (-2,342)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013[†] (-1,804)		-0,013[†] (-1,769)
	Legal origin dummy 1=Commercial code		-.095 (-,529)		0,249 (15,549)
	Legal origin dummy 1=Social/Communist Law		-.217 (-1,003)		0,388[†] (15,313)
	Freedom of press		-.005 (-,431)		-0,013 (15,367)
	Social capital		-.012[†] (-2,258)		-0,006[†] (15,617)
	Protestant population		-.006[†] (-1,967)		-0,009^{***} (15,662)
	Model Summary				
Model Fit Index	Deviance Statistic(-2 log likelihood)	60240,024	60263,784	59624,573	93436,507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AIC)	60244,024	60267,784	59644,573	93456,507
	Hurvich & Tsai Criterion(AICC)	60240,025	60267,785	59644,581	93456,515
	Bozdogan Criterion(CAIC)	60262,390	60286,149	59736,394	93548,922
	Schwarz's Bayesian Criterion(BIC)	60260,390	60284,149	59726,394	93538,922

†p<.1 *p<.05, **p<.01 ***p<.001

cf) Gender: 1=male, 2=female; Occupation: 1=employed(including self-employed), 2=not working;

Type of community: 1=rural, 2=town

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규모와 부패수준 간의 부정적 관계를 주장했던 Goel & Nelson(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국가수준의 변수만을 포함한 모형에서의 분석결과 는 사회 전체에 대한 부패수준 인식에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수준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자본의 수준과 언론

의 자유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정부의 규모가 적을수록 사회 전체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저개발국가일수록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반면 개신교가 일반화된 국가일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다.

Model3에서 사회의 부패만연 정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수로는 성별과 생활수준을 제외하고 모든 개인수준의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부패만연 정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업의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이 있는 사람들보다 사회 전체에 대한 부패수준 인식이 높다. 교육수준은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부패인식수준이 낮아지며, 반대로 교육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거주지의 유형별로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사회 전체에 대한 부패수준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와의 접촉빈도는 사회적인 부패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사회 전체에 대한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Sardan(1999)이 주장한 바와 같이 관료와의 활발한 접촉을 통해 의뢰인이 선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쉽다. 결국 관료와의 접촉빈도는 부패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기존의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에서 자신이 사회에서 하위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할수록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하위계층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개인특성 변수 중에서 직업유무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며, 다음으로 거주지 유형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변수들의 공통점으로 사회적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직업유무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다. 주관적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 역시 하위층에 속할수록 그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다. 요약하면 개인

의 직·간접적인 경제 상황이 열악할수록 사회 전체에 대한 부패수준 인식이 강해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Model4는 개인특성 변수와 국가수준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 인식에 대해서는 부패인식에 대해서는 개인수준 변수 중에서 직업유무, 거주지유형, 공무원 접촉빈도, 사회적 계층 인식 등이 유의수준 5% 미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변수 중에서는 경제적 자유 수준, 종교변수로서 프로테스탄트 인구비율 등의 변수가 5% 미만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 정부규모, 법적 전통은 유의수준 10% 미만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사람에 비해 직업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부패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부패인식수준이 높았다. 공무원과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수준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던 Model3에서와의 차이는 국가수준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직업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사회부패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하다는 점이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부패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Model3에서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다수준 분석결과 개인수준 변수들의 영향력은 기존 연구결과를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먼저 도시와 시골 거주자 간의 부패에 대한 인식의 경우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의 복잡성과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Meier & Holbook, 1992; Chatterjee & Ray, 2012; Goel, *et. al.*, 2012). 본 연구결과 역시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무원의 접촉빈도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접촉빈도가 증가할수록 개인적 유대를 통해 사회적 의무보다 개인적 의

무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점에서 부패의 기회와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de Sardan, 1999). 따라서 관료와의 접촉빈도는 사회적 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적 계층인식 역시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 관료와의 부패행위에 대한 유인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Heath, *et. al.*, 2016). 그러나 직업유무와 관련하여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보다 부패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생활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빈도,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 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패에 대한 경험이나 인지의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수준의 요인으로 경제적 자유 수준과 프로테스탄트 인구비율은 부패수준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자유수준이 낮을수록, 프로테스탄트 인구비율이 낮을수록 부패수준 인식이 강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경제적 자유수준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나 Dimant & Tosato(2018), Paldman (2002) 등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수준이 높아지면 부패의 기회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부패수준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부패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종교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럽 국가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국가운영의 원리이다. Treisman(2000), Paldman(2002), North, *et. al.*(2013) 등의 연구는 종교와 부패수준 간에 관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프로테스탄트는 부패수준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역시 프로테스탄트 인구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기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비록 전통적인 유의수준인 5%에서 벗어나 있지만 10% 미만의 유의수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⁴⁾, 정부규모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법전통(common law)보다 사회주의법(social/communist law) 전통의 국가에서 부패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1인당 국민소득은 부패의 원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요인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경제발전수준이 높을수록 부패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일관된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 즉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규모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규모가 커질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Goel & Nelson(1998)의 연구는 정부규모가 부패행위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반면, Goel & Nelson(2010)의 연구에서는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부패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한다. 정부규모와 부패 간에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Goel & Nelson(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제도적 환경에서 법적 전통은 일반법 전통의 국가에 비해 사회주의법 전통의 국가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Treisman(2000), Goel & Nelson(2010)의 연구결과는 일반법(common law) 체계를 가진 국가가 더욱 낮은 부패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사법(commercial code) 전통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사회주의 법 전통은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 공직 부패인식에 대한 다수준 분석결과

〈Table 4〉는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Model2에서는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국가수준의 요인으로 1인당 국민소득과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유의수준 5% 미만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높을

4)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b값은 .000이나 t값의 부호는 -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Table 4. Multi-level analysis: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Regression Coefficient (Fixed-effect)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Model1	Model2	Model3	Model4
		b(t)	b(t)	b(t)	b(t)
Constant		1,159^{***} (11,030)	3,633 (.895)	1,272^{***} (9,053)	-12,266[*] (-2,656)
Individual level var.	Gender			-.005 (-.180)	0.006 (.192)
	Ages			-.005^{***} (-4,371)	-0.005^{***} (-4,539)
	Occupation			.099^{***} (3,818)	-0.098^{***} (-3,618)
	Education			-.002^{**} (-2,774)	-0.002^{**} (-2,751)
	Type of community			-.031 (-.844)	0.029 (.754)
	Level of living			.027[*] (2,724)	0.027[*] (2,678)
	Contact with civil servants			.193^{**} (8,620)	0.193^{**} (8,729)
	Social class			-.042^{**} (-3,332)	-0.042^{**} (-3,354)
National level var.	Democracy		.128 (.328)		1,568[*] (3,361)
	Political right		.472 (.901)		1,874[*] (2,976)
	GDP per capita		-1.066E-5[*] (-2,567)		0.000[*] (-2,676)
	Income inequality(GINI)		.056[*] (2,632)		0.102^{**} (3,970)
	Economic freedom		-.674[†] (-1,953)		-0.578 (-1,365)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006 (.625)		0.007 (.654)
	Legal origin dummy 1=Commercial code		.278 (1,199)		-0.429 (-1,529)
	Legal origin dummy 1=Social/Communist Law		.352 (1,258)		-0.421 (-1,2550)
	Freedom of press		-.026 (-1,681)		-0.065^{**} (-3,478)
	Social capital		-.007 (-1,031)		-0.006 (-.770)
	Protestant population		-.007[†] (-1,931)		-0.009[†] (-2,008)
Model Summary					
Model Fit Index	Deviance Statistic(-2 log likelihood)	94498,893	94522,431	93421,497	93436,507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AIC)	94502,893	94526,431	93441,497	93456,507
	Hurvich & Tsai Criterion(AICC)	94502,893	94526,432	93441,505	93456,515
	Bozdogan Criterion(CAIC)	94521,379	94544,916	93533,916	93548,922
	Schwarz's Bayesian Criterion(BIC)	94519,379	94542,916	93523,916	93538,922

† p<.1 * p<.05, ** p<.01 *** p<.001

cf) Gender: 1=male, 2=female; Occupation: 1=employed(including self-employed), 2=not working;

Type of community: 1=rural, 2=town

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이 강해진다. 유의수준 10% 미만에서는 경제적 자유지수와 프로테스탄트인구 비율이 유의미한데 경제적 자유의 수준이 낮을수록, 프

로테스탄트 인구비율이 적을수록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에서 사회 전체에 대한 부패수준 인식에 대

해서는 정치적 요인을 제외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국가수준에서 사회의 부패문제는 복잡성을 띠는데 반해 공공기관의 부패 문제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환경적 요인의 폭이 좁다. 특히 공공부패의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의 완화나, 경제적 잉여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소득수준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한편 공공부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수는 성별과 거주지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은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 인식에서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공공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은 대비되는 결과이다. 그 외에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 접촉빈도가 빈번할수록, 주관적으로 자신이 하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공공부패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은 공무원의 접촉빈도가 가장 강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 대한 접촉빈도는 공직자와의 유착관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패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접촉빈도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을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과의 접촉을 통한 개인적 유대의 강화가 공공부패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직업유무가 공공부패의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공무원과의 접촉과 경제적 상황이 공공부패 인식에 핵심적임을 알 수 있다.

개인특성변수와 국가 수준 변수 모두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부패인식에 대한 개인적 특성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 직업, 교육수준, 생활수

준, 공무원접촉빈도, 사회적 계층인식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직업유무와 공무원 접촉빈도, 사회적 계층인식은 앞서 분석한 사회적 부패인식에서와 동일한 결과이다. 연령과 교육수준, 생활수준은 공공기관의 부패인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반면 거주지 유형은 사회적 부패인식에서와 달리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연령과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기관의 부패인식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수준의 변수 중에서는 유의수준 5%미만에서 민주주의 수준, 정치적 권리보장 수준, 1인당 국민소득, 소득불평등 정도, 언론의 자유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프로테스탄트 인구비율은 유의수준 10%미만에서 유의미한 변수이다. 1인당 국민소득과 프로테스탄트 인구비율은 사회적 부패인식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고 정치적 권리보장 수준이 낮을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클수록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는 정치적인 요인으로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Treisman, 2000; Wei,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적 부패인식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aldman(2002)은 '균형을 잃은 소득분배가 불법적인 취득을 촉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사회적 부패수준 인식에서와 달리 경제적 자유지수와 정부·제도적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는 공공기관의 부패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언론의 자유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본 분석을 통해 개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특성이나 인식에 기초하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전체적인 국가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가 처한 환경에 따라 개인의 부패 인식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 인식과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직업, 거주지유형 등이 주요 변수인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은 공무원과의 접촉빈도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와의 접촉빈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패의 유형이 공직부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 직업 유무는 사회부패나 공공부패 모두에서 공통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직업이 없을 경우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사회 전체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더욱 만연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수준에서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인식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요인과 정부·제도적 요인이 중요하게 제시될 수 있는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에서는 정치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제시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에서 정치적 요인이 핵심적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공공기관의 부패가 정치적인 현상과 관련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부패가 인위적 국가재난과 위기상황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부패수준을 간접적으로 가늠하는 의미를 가지지만 개인의 부패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고, 갈등이 유발되며, 다양한 재난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정책순응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부패인식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부패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국가의 위기관리과정에서 정책순응을 담보할 수 있고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서 위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본 연구가 국민의 부패인식에 초점을 맞춘 이유이다.

부패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특성으로 기인할 수도 있지만 각 국가가 처한 환경이 부패인식을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부패현상이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수준변수와 국가수준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는 다수준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인식과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해서 개인적 특성 요인과 국가의 환경적 요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인식과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의 영향요인이 차별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의 국가수준의 영향요인에서는 정치적 요인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문제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종교, 법적 전통의 요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경제발전수준, 소득불평등,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수준 등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로 부패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많다. 따라서 개인의 부패인식을 개인적 문제로 귀인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부의 노력으로 국가적 환경변화를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부패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위험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데 Beck(1992)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부패에 대한 인식 역시 사회적 위험과 위기상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부패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des, Alberto and Rafael Di Tella. 1997. National Champions and Corruption: Some Unpleasant Interventionist Arithmetic. *The Economic Journal*. 107(July): 1023-1042.
- Ahlin, Christian and Pinaki Bose. 2007. Bribery, Inefficiency, and Bureaucratic Dela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4(1): 465-486.
- Aidt, Toke S. 2009. Corruption, Institut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5(2): 271-291.
- Aidt, Toke, Jayasri Dutta, and vania Sena. 2008. Governance Regimes, Corruption and Growth: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6(2): 195-220.
- Ali, Abdiweli M. and Hoden S. Isse. 2003. Determinants of Economic Corruption: A Cross-Country Comparison. *Cato Journal*. 22(3): 449-466.
- Al-Sadig, Ali. 2009. Effects of Corruption on FDI Inflows. *The Cato Journal*. 29(2): 267-294.
- Anderson, Christopher J. and Yuliya V. Tverdova. 2003. Corruption, Political Allegiances, and Attitudes Toward Government in Contemporary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1): 91-109.
- Andres, Antonio R. and Carlyn Ramlogan-Dobson. 2011. Is Corruption Really Bad for Inequality? Evidence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7(7): 959-976.
- Arvate, Paulo R., Andrea Z. Curi, Fabiana Rocha, and Fabio A. Miessi Sanches. 2010. Corruption and the Size of Government: Causality Tests for OECD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Applied Economics Letters*. 17(10): 1013-1017.
- Azfar, Omar and Tugrul Gurgur. 2008. Does Corruption Affect Health Outcomes in the Philippines?. *Economics of Governance*. 9(3): 197-244.
- Bai, Jie, Seema Jayachandra, Edmund J. Malesky, and Benjamin A. Olken. 2013. Does Economic Growth Reduce Corruption? Theory and Evidence from Vietnam. *NBER Working Paper(No.19483)*.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arassi, Macro R. and Ying Zhou. 2012. The Effect of Corruption on FDI: A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8(3): 302-312.
- Bardhan, Pranab. 1997. Corrup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3): 1320-1346.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Beekman, Gonne, Erwin Bulte, and Eleonora Nillesen. 2014. Corruption, Investments and Contributions to Public Goods: Experimental Evidence from Rural Liberi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5(July): 37-47.
- Bhattacharyya, Sambit and Roland Hodler. 2015. Media Freedom and Democracy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9(September): 13-24.
- Bicchieri, Cristina and Deshani Ganegonda. 2016. Determinants of Corruption: A Socio-Psychological Analysis. Philip M. Nichols and Diana C. Robertson. eds. *Thinking About Bribery, Neuroscience, Moral Cognition and the Psychology of Bribery*.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ckburn, Keith, Niloy Bose, and M. Emranul Haque. 2006. The incidence and persistence of corruption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30(12): 2447-2467.
- Busse, Matthias and Carsten Hefeker. 2007. Political Risk, Institu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3(June): 397-415.
- Campos, J. Edgardo, Donald Lien, and Sanjay Pradhan. 1999. The Impact of Corruption on Investment: Predictability Matters. *World Development*. 27(6): 1059-1067.
- Castro, Massimo, Calogero Guccio, and Ilde Rizzo. 2014. An Assessment of the Waste Effects of Corruption on Infrastructure Provisio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1(4): 813-843.
- Celarier, Michelle. 1997. Privatization: A Case Study in Corrup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0(2): 531-543.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4. *The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download/download-2014/index.html>
- Chung, Young Il. 2010. U.S. Legal Systems for Regulating Public Corrup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4(2): 311-332.

- Damania, Richard. Per G. Fredriksson and John A. List. 2003. Trade Liberalization, Corruption, and Environmental Policy Formation: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46(3): 490-512.
- de la Croix, D. & Delavallade, C. (2009). "Growth, Public Investment and Corruption with Falling Institutions.". *Economics of Governance*. 10(3): 187-219.
- de Sardan, J. P. Olivier. 1999. A Moral Economy of Corruption in Afric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7(1): 25-52.
- della Porta, Donatella and Alberto Vannucci. 2012. *The Hidden Order of Corrupt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Farnham: Ashgate.
- Dimant, Eugen and Guglielmo Tosato. 2018. Causes and Effects of Corruption: What Has Past Decade's Empirical Research Taught U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2(2): 335-356.
- Dimant, Eugen and Thorben Schulte. 2016. The Nature of Corruption: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Special Issue of the German Law Journal*. 17(1): 54-72.
- Djankov, Simeon, Caralee McLiesh, Tatiana Nenova, and Andrei Shleifer. 2003. Who Owns the Media?.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6(2): 341-382.
- Dobson, Stephen and Carlyn Ramlogan-Dobson. 2010. Is There a Trade-Off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orruption? Evidence from Latin America. *Economics Letters*. 107(2): 102-104.
- Dollar, David, Raymond Fisman, and Roberta Gatti. 2001. Are Women Really the "Fairer" Sex? Corruption and Women in Governmen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46(4): 423-429.
- Egger, Peter and Hannes Winner. 2005. Evidence on Corruption as an Incentive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1(4): 932-952.
- European Commission. 2017. *Eurobarometer 88.2: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European Union and corruption*. TNS Opinion & Social [Producer]. GESIS - Leibniz Institute for the Social Sciences [Producer]. UniData - Bicocca Data Archive, Milan. Study Number SI366. Data file version 1.0.
- Fons, Jerome S. 1998. Improving Transparency in Asian Banking Systems. William C. Hunter, George G. Kaufman, and Thomas H. Krueger. eds. *The Asian Financial Crisis: Origins, Implications, and Solutions*. ed. Boston: Springer.
- Ghaniy, Nafi and Fithra F. Hastiadi. 2017.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Corru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ial Issues*. 7(4): 144-149.
- Glaeser, Edward L. and Raven E. Saks. 2006. Corruption in Americ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0(6): 1053-1072.
- Goel, Rajeev K. and Michael A. Nelson. 1998. Corruption and Government Size: A Disaggregated Analysis. *Public Choice*. 97(1-2): 107-120.
- Goel, Rajeev K. and Michael A. Nelson. 2010. Causes of Corruption: History, Geography and Government. *Journal of Policy Modeling*. 32(4): 433-447.
- Gray, Cheryl W. and Daniel Kaufmann. 1998. Corruption and Development. *Finance and Development*. 35(1): 7-10.
- Gupta, Sanjeev, Hamid Davoodi, and Rosa Slonso-Terme. 2002. Does Corruption Affect Inequality and Poverty?. *Economics of Governance*. 3(1): 23-45.
- Gupta, Sanjeev, Luiz de Mello, and Raju Sharan. 2001. Corruption and Military Spending.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7(4): 749-777.
- Gwartney, James, Robert A. Lawson, Joshua C. Hall, Hans Pitlik, Dulce M. Redin, and Martin Rode. 2015.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5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 Gyimah-Brempong, Kwabena and Samaria M. de Camacho. 2006. Corruption,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Are There Regional Differences?. *Economics of Governance*. 7(3): 245-269.
- Hall, Thomas and Glenn Yago. 2000. Estimating the Cost of Opacity Using Sovereign Bond Spreads. *Policy Brief*. 13(April). Milken Institute, California.
- Harring, Niklas. 2013.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Corruption and Political Trust on Willingness to Make Economic Sacrific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Social Science Quarterly*. 94(3): 660-671.
- Harstad, Bård and Jakob Svensson. 2011. Bribes, Lobbying and Develop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5(1): 46-63.
- Heath, Anthony F., Lindsay Richards, and Nan D. de Graaf. 2016. Explaining Corruption in the Developed World: the Potential

- of Sociological Approach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42(July): 51-79.
- Heidenheimer, Arnold J. 1996. The Topography of Corruption: Exploration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48(149): 337-347.
- Huntington, Samuel P.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Christian W. Haerpfer, Alejandro Moreno, Christian Welzel, KKseniya Kizilova, Juan Diez-Medrano, Marisa Lagos, Pippa Norris, Eduard Ponarin, and Bi Puranen. 2014. *World Values Survey: Round Six-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www.worldvaluessurvey.org/WVS DocumentationWV6.jsp. Madrid: JD Systems Institute.
- Jain, Arvind K. 2001. Corruption: A Review.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5(1): 71-121.
- Kaufman, Daniel and Pedro C. Vicente. 2011. Legal Corruption. *Economics & Politics*. 23(2): 195-219.
- Kaufman, Daniel and Shang-Jin Wei. 1999. Does 'Grease Money' Speed Up the Wheels of Commerce?. *NBER Working Paper(No.7093)*.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Kim, Bo Eun. 201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actors Causing Corruption on Public Officials' Awareness of Outside Illegality.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8(4): 171-199.
- Kim, Ju-Young. 2013. A Study on Regulations of Public Official's Conflict of interest for Preventing Public Corruption- A Legislative Evaluation based on the Criteria of Systemicity and Understandability. *Public Law Journal*. 14(3): 175-209.
- Knack, Stephen and Philip Keeper. 1995.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7(3): 207-227.
- Ko, Kilkon and Sueyeon Cho. 2017. How Do Corruption Experienced Citizens Understand Causes of Corruptio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8(1): 31-56.
- Ko, Young Churl. 2016. A Study on Kinds of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and Ways of Media Reports: Focused on Contents of Report by Three Dailies in Jeju.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6(3): 5-48.
- Kotera, Go, Keisuke Okada, and Sovannroeun Samreth. 2012. Government Size, Democracy, and Corrup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Economic Modelling*. 29(6):2340-2348
- Kurer, Oskar. 1993. Clientelism, Corruption,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Public Choice*. 77(2): 259-273.
- La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 Silanes,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The Quality of Govern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5(1): 222-279.
- Lee, Kwang Mo. 2011. A Confucian Perspective on the Cause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Its Control: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wae" and "Hyo".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3): 203-226.
- Lee, Wang-Sheng and Cahit Guven. 2013. Engaging in Corruption: The Influence of Cultural Values and Contagion Effects at the Microlevel.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9(December): 287-300
- Leff, Nathaniel H. 1964.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Bureaucratic Corrup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82(2): 337-341.
- Lui, F. T. 1985. "An Equilibrium Queuing Model of Bribe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4): 760-781.
- Mathur, Aparna and Kartigeeya Singh. 2013. Foreign Direct Investment, Corruption and Democracy. *Applied Economics*. 45(8): 991-1002.
- Mauro, Paolo. 1995. Corruption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681-712.
- Mauro, Paolo. 1997.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Growth, Investment, and Government Expenditure: A Cross-Country Analysis. Kimberly A. Elliott. ed. *Corruption and the Global Economy*. ed.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Meier, Kenneth and Thomas M. Holbrook. 1992. "I Seen My Opportunities and I Took 'Em:": Political Corruption in the American States. *The Journal of Politics*. 54(1):135-155.
- Melgar, Natalia, Máximo Rossi, and Tom W. Smith. 2010.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2(1): 120-131.
- Miller, David. 2015. Neoliberalism, Politics and Institutional Corruption: Against the "institutional malaise" Hypothesis. David Whyte. ed. *How Corrupt is Britain*. ed. London: Pluto Press.
- Mocan, Naci. 2008. What Determines Corruption? *International*

- Evidence from Mirodata. *Economic Inquiry*. 46(4): 493-510.
- Moreno, Alejandro. 2002. Corruption and Democracy: A Cultural Assessment. *Comparative Sociology*. 1(3-4): 495-507.
- Morris, Stephen D. and Joseph L. Klesner. 2010. Corruption and Trust: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Evidence From Mexico.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3(10): 1258-1285.
- Murphy, Kevin M.,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1991. The Allocation of Talent: Implications for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2): 503-530.
- Nieuwebeerta, Paul, G. G. A de Geest, and Jacques J. Siegers. 2003. Street-level Corruption in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European Societies*. 5(2): 139-165.
- North, Charles M., Wafa H. Orman, and Carl R. Gwin. 2013. Religion, Corruption and the Rule of Law.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45(5): 757-79.
- Offer, Avner and Gabriel Söderberg. 2016. Beyond Scandinavia: From Market Efficiency to Market Corruption. Avner Offer and Gabriel Söderberg. eds. *The Nobel Factor: The Prize in Economics, Social Democracy, and the Market Turn*.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lken, Benjamin A. 2009. Corruption Perceptions vs Corruption Rea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7-8): 950-964.
- Paldman, Martin. 2002. The Cross-Country Pattern of Corruption: Economics, Culture and the Seesaw Dynamic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8(2): 215-240.
- Park, Heung-Sik. 2016. A Review of the Last Sixty Years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Korea: Administrative Control, Administrative Ethics, and Bureaucratic Corrup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5): 339-366.
- Pellegrini, Lorenzo and Reyer Gerlagh. 2004. Corruption's Effect on Growth and Its Transmission Channels. *Kyklos*. 57(3): 429-456.
- Pellegrini, Lorenzo and Reyer Gerlagh. 2008. Causes of Corruption: A Survey of Cross-Country Analyses and Extended Results. *Economics of Governance*. 9(3): 245-263.
- Puddington, Arch and Tyler Roylance. 2016. *Freedom in the World*. Freedom House.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ichards, Lindsay and Anthony Heath. 2016. Explaining the Incidence of Bribery in Europe: a Multilevel Analysis. *Working paper*. 2016-01. Centre for Social Investigation Oxford.
- Rose-Ackerman, Susan, 1999. 'Grand' Corruption and the Ethics of Global Business. *Yale Law School, Program for Studies in Law, Economics and Public Policy, Working Paper*. No. 221(October).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191352>.
- Rose-Ackerman, Susan. 1997a. The Role of The World Bank in Controlling Corruption.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29(1): 93-114.
- Rose-Ackerman, Susan. 1997b. The Political Economy of Corruption. Kimberly Ann Elliott. ed. *Corruption and the Global Economy*. ed.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Rothstein, Bo. 2011. *The Quality of Government: Corruption, Social Trust, and Inequali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ha. Shrabani, Rukmani Gounder, and Jen-Je Su. 2009. The Interaction Effect of Economic Freedom and Democracy on Corruption: A Panel Cross-Country Analysis. *Economics Letters*. 105(2): 173-176.
- Seligson, Mitchell A. 2002. The Impact of Corruption on Regime Legitimacy: A Comparative Study of Four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Journal of Politics*. 64(2): 408-433.
- Shabbir, Ghulam and Mumtaz Anwar. 2007. Determinants of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Pakistan Development Review*. 46(4): 751-764.
- Shin, Dong-Joon. 2013. Social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with Criminological Perspectives.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4(4): 149-191.
- Shleifer, Andrei and Robert W. Vishny. 1993. Corrup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3): 599-617.
- Shore, Cris and Dieter Heller. 2005. Introduction-sharp Practice: Anthropology and the Study of Corruption. Dieter Haller and Cris Shore. eds. *Corruption: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ed. London: Pluto Press.
- Svensson, Jakob. 2005. Eight Questions about Corrup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3): 19-42.

- Swaleheen, Mushfiq us and Dean Stansel. 2007. Economic Freedom, Corruption, and Growth. *Cato Journal*. 27(3): 343-358.
- Swamy, Anand, Stephen Knack, Young Lee, and Omar Azfar. 2001. Gender and Corrup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4(1): 25-55.
- Tanzi, Vito and Hamid Davoodi. 1997. Corruption, Public Investment, and Growth. *IMF Working Paper*. No.97/139.
- Tanzi, Vito. 1998.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s, Consequences, Scope, and Cures. *IMF Working Papers*. No.98/63.
- Treisman, Daniel. 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3): 399-457.
- Treisman, Daniel. 2007. What Have We Learned about the Causes of Corruption from The Years of Cross-National Empirical Research?.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June): 211-244.
- Truex, Rory. 2011. Corruption, Attitudes, and Education: Survey Evidence from Nepal. *World Development*. 39(7): 1133-1142.
- Ugaz, José. 2017. N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out Tackling Corruption: The Importance of Tracking SDG 16. *Civil Society*. 17(July). https://www.transparency.org/news/feature/no_sustainable_development_without_tackling_corruption_SDG_16.
- Uslaner, Eric. 2002. *The Moral Foundation of Tru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 Shang-Jin. 2000.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1): 1-11.
- World Bank Open Data. 2016. Available i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고길곤, 조수연. 2017. 시민의 부패 경험과 부패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의 관계: 관계의 시점 간 안정성과 효과크기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1): 31-56.
- 고영철. 2016. 공직부패의 보도방식 및 부패 유형 등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3개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언론 과학연구. 16(3): 5-48.
- 김보은. 2018. 부패유발요인이 공무원의 외부부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업가 인식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4): 171-199.
- 김주영. 2013.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검토: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4(3): 175-209.
- 박홍식. 2016. 한국 행정책임 연구 60년: 행정통제, 공직윤리,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5): 339-366.
- 신동준. 2013. 부패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범죄사회학적 관점에서. *형사정책연구*. 24(4): 149-191.
- 이광모. 2011. 공직부패의 발생원인 및 통제에 관한 유교적 관점: 『주역』 ‘괘(卦)’ · ‘효(孝)’의 관계구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3): 203-226.
- 정영일. 2010. 미국의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 법제도. *국제지역연구*. 14(2): 311-332.

Received: Mar. 3, 2019 / Revised: Mar. 20, 2019 / Accepted: Mar. 25, 2019

부패인식의 요인

–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함의 –

국문초록 국민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부패수준을 간접적으로 가늠하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국가 재난상황 해결 과정에서 정책수용 확보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개인수준변수와 국가 수준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는 다수준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인식과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한 인식 모두 개인적 요인과 국가환경적 요인이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인식과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의 영향요인이 차별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패에 대한 인식 역시 사회적 위험과 위기상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부패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 부패인식, 개인특성, 국가환경, 다수준분석

Profiles **Jae Sun Wang** : He received his Ph.D. from Korea University, Korea in 2008. He is a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Honam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14.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re policy evaluation, comparative policy and government reform(jaesunwang@gmail.com).